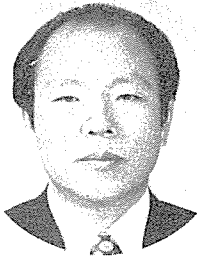


公害의 眞犯



宋 赫

〈詩人·東國大교수〉

俗談을 흔히 진리처럼 믿는다. 민족사회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함축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민중의 共感과 支持를 의심할 여지없이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속담의 生命力이 영구적이었던 것도 이런데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俗談은 결코 진리가 아니다. 현대의 몇가지 특징인 産業化와 人口의 都市集中化 현상만으로도 우리가 支持를 표명해 왔던 속담의 세계는 부득이 수정 되어야 할 형편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는 그 중의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까 한다.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牛馬는 낳으면 上山에 보내라』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고 마소의 새끼는 濟州로 보내라』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서울은 立身揚名의 방법이 집중된 곳 따위의 뜻이겠는데, 이는 『서울에 가야 科擧에 급제하지』라는 속담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出世主義의 산물로서 삶의 질을 높여 가려는데 목표를 둔다.

오늘의 서울이 펼쳐 놓은 풍경들은 한마디로 이 속담의 함축성을 전혀 배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先進國의 大都市들이 경험해야 했던 苦痛과 不道德性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法의 손질이 아무리 강화된다 하더라도 서울의 空間은 殺人的 방자함을 거두지 않는다.

며칠전 일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택시를 탔다. 불과 5백미터나 갔을까. 두 손님을 이렇다 할만한 양해도 받지 않고 合乘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다소 마음은 언짢았지만 참는 도리 밖에 없었다. 분명히 合乘을 시킨 기사의 행위는 不法이고, 게다가 ‘걸리면(?)’ 적지 않은 벌금 등이 과해진다는데 이를 무릅쓰고 오직하면 눈치작전을 하려섰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를 묵인한 승객 또한 공범자나 다름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合乘행위를 묵인한 것은 그 나름의 구실이 있음직 했다. 기왕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이라면 合乘을 시켜도 서로 좋을 것이 아닌가. 막대한 外貨로 수입하

는 유류(또는 가스)이고 보면 그만큼 절약도 될 것이고, 교통난의 해소에도 一助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기사의 수입도 상대적으로 많아 질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一石三鳥格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택시 승乘禁止를 단행한 당국자가 이를 모를 덕이 없다. 승乘으로 빚어지는 여러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취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나는 그 이유의 하나로 일부 기사의 不道德性을 생각했다. 문제의 택시는 뒤에 탄 손님들을 먼저 내려 주기 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禁煙이란 표어가 차창에 붙어 있었으나 뒤에 탄 승객은 담배를 피우고, 이쯤되고 보면 무어라고 한마디 쏘아 부쳐야 할 형편이었다. 그렇다고 기사만을 탓할 수도 없다. 아니면 愛煙하는 처지에 담배연기를 내뿜는 승객과 시비를 가릴 수도 없었다. 이럴 경우 「참는 것이 약이지!」 별도리가 없다. 최소한 이 정도의 정신적 고통쯤을 감수할 수 없는 위인은 이른바 「特別市民」 자격을 스스로 포기해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택시는 한참을 다른 길로 돌아 내가 내려야할 지점에 도착했다. 뒤에 탄 승객을 먼저 내려주고 난 다음이 였다. 요금이 얼마냐고 물었다. 기사는 서슴치 않고 미터기에 나타난 대로 요구했다. 다소 쾌쌌다 싶어 따지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합승금지라는 표지를 붙쳐 놓고 합승을 시킨 不法性을, 둘째 이렇다 할만한 양해도 받지 않고 합승을 시킨 점을 든 다음 우회한 거리만큼은 적게 받아야 사리에 맞지 않겠냐는 것등을 내 나름으로는 조용하게 말했다. 기사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다. 이 손님이 뭘 이러느냐면서 매우 거칠게 나온다. 사태가 이쯤되고 보면 忍耐는 美德이 아니라 惡德이 된다. 비좁은 차안에서 是非를 가릴 것이 아니라 불과 500여미터 전방에 서있는 교통순경에게 가자고 했다. 그 순간 기사의 얼굴빛이 작변하면서 잘못했다는 사죄와 함께 예상했던 요금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내라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이

래도 되는 것일까. 이 寸劇은 내가 예상한 요금을 지불하고 내린 것으로 끝났지만 마음 한 구석을 어둡게 했다.

法은 무섭지만 사람은 때에 따라 얼마든지 알보는 「마음이 병든 社會」의 일단을 이 하찮은 例話는 보인 것이 된다. 人間을 위해 法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法보다도 존중되어야 할 것은 人間이겠는데 市民의 素朴한 걱정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언젠가 유엔人間環境會議가 열린 적이 있다. 「오직 하나 밖에 없는 地球를 보호하자」는 것이 슬로건이었다. 인간은 쾌적한 환경을 享有할 權利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가 무자비하게 짓밟혀 왔기 때문이다.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工場과 都市는 肥大化一路였다. 거기서 쏟아내는 汚染物質은 이른바 地球村의 생존 조건을 위협하는 사태로 판단된 것이다. 오염물질을 淨化하는 장치를 서둘게 된 그간의 사정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인간이 自然과의 共存秩序를 회복하자는 것이 人間環境會議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생존을 지탱해 주는 것은 신선한 空氣와 물이 첫째다. 高度産業化와 都市化과정은 각종 公害를 加速化시킨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이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성과이다. 부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死後藥方 文格의 사태도 있는 것을 흔히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인간과 자연과의 행복한 공존질서를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하면서 공장이나 도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백년뒤에 빚어질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슬기를 지녀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런 주문은 物量爲主의 목표 달성만을 제일로 꼽는 풍조로 볼 때 매우 어설픈 것이 될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物量爲主의 가치전도 현상이 각종 公害의 眞犯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例示한 택시 기사의 不法的인 합승 행위도 그러한 思考의 연장선상에서 빚어진 公害라고 믿기 때문이다.